

광복 60주년의 해 3·1절...특별 진단

# 일제 관련 역사 연구 '무풍지대'

### 각종 '특별법안' 발효 외면, 항일·친일 재조명 필요... '다솔사 성역화' 등 여론

불교계는 '역사바로세우기'의 무풍지대인가.

지난해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 친일파 후손의 땅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등 광복 60주년을 맞아 어느 해보다도 역사바로세우기 바람이 거세다.

하지만 웬일인지 불교계는 조용하기만 하다. 일제치하 교단 지도부 스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적극적인 친일행위자라는 의혹에 대해서조차 진상의 실마리를 내놓지 못한 채 외면만 하고 있다. 이에 불교계의 역사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조차도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고 보면 역사인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 지나친 것만은 아니다. 3·1운동 당시 전국 사찰에서 거국적으로 참여했지만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는 것이 단적인 예.

#### 스님들 항일활동 더이상 묻어두지 않겠다

김법린·김상현·유석규 스님 등 범어사 스님들이 주도한 동래장터 시위, 이장욱·이철수·오학성 스님 등 통도사와 표충사 스님들이 주축이 됐던 단장 장터 시위, 김봉신·홍태연 스님들 해인사 스님들이 주도한 활천 읍내 시위 등 전국 곳곳에서 스님들의 주도도 시위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뒤따르지 않고, 3·1운동과 이들 사찰과의 관련성 또한 강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3·1절' 하면 교회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1930년대 남부지방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사천 다솔사(주지 혜일)도 마찬가지 경우다. 현대 다도(茶道)의 중흥조로 불리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출가 본사로 더 유명한 다솔사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만해 스님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이 차랑만큼이나 깊게 서린 곳이다.

다솔사는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결성했던 청년운동 조직인 만당(萬黨)의 은신처이자, 독립운동 자금 조달 기구였던 백산상회의 연락소였다. 1933년 효당 스님이 주지로 있던 다솔사로 만해 스님이 숨어들면서 시작된 다솔사와 독립운동과의 인연은 뒷날 다솔사가 남부지방 독립운동의 거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위해 태화관에 모여든 민족대표들. 정면 오른쪽이 만해 스님. 왼쪽이 손영희 선생이다. 독립선언식 기록화(1976·최대섭 작)

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백산 안희제, 백산상회 대주인 문영빈, 김동리의 친형이자 당시 동양사상의 1인자 김법부, 만해 스님의 제자로 불교혁신운동의 주역이었던 김법린 등 한국근대사를 일군 거목들이 다솔사를 드나들었다.

이런 다솔사는 만해 스님이 당수였던 만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만해 스님 회갑연 후 직접 심었다는 황금 편백만이 남아 뿌리를 내리며 역사 속에 묻힌 그 스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다솔사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 연구 또한 미흡하다.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조영규 계장은 "다솔사가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조명하고 연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산이나 자료 부족 등으로 묻어두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 '부끄러운 역사'라도 연구해야 할 과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가 이처럼 파묻혀 있으니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가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종단들의 근대적 기틀이 일제시대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친일사는 현 종단들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 만큼 불교계가 전력을 기울여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종욱 스님의 예를 보면 친일사 연구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이종욱 스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1930년대 중반에

는 총본산 건설운동을 주도하여 조계사(당시 태고사) 창건을 성사시켰으며 1941년 근대 최초의 합법적인 교단인 조선불교 조계종을 창립하는 공을 세웠다. 하지만 일제 말 친일 행각을 벌여 독립운동가와 친일승이라는 비판이 잇달고 있는 인물이다. 이종욱 스님 연구가 박희승 씨는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친일승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종욱 스님의 일제 협력은 종단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인물' 재조명 작업에 종단·학계 나서야

이처럼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



1930년대 남부지방 항일운동 거점이었던 다솔사의 황금편백 나무. 만해스님이 심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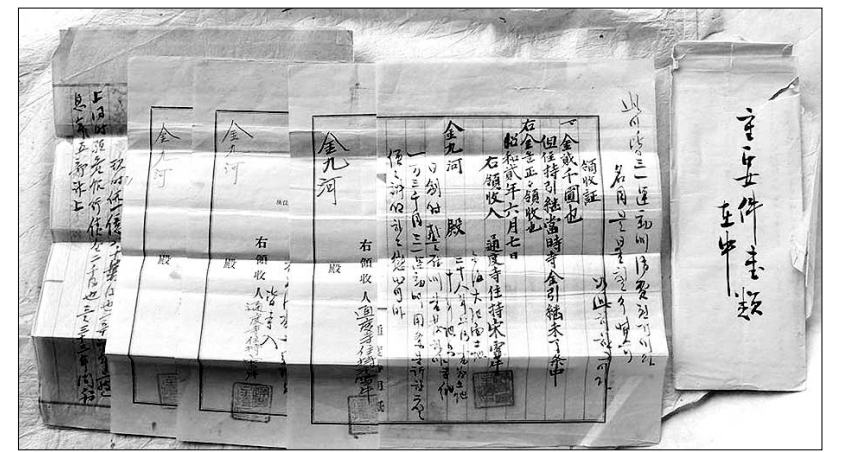
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행적을 올바르게 조명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근현대불교사는 오늘의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자료수집·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아 연구의 황무지로 남아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근현대조선불교사학인 김순석 박사(한국학진흥원)는 "종단이 중심이 돼 한시적인 조사·연구 기구라도 구성해서 불교계의 친일행각을 제대로 규명하는 한편, 독립운동사도 함께 발굴해야 불교사가 바로 선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참회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박익순 기자

## "구하 스님 독립운동 비밀 지원"

### 통도사, 입적 40주기 맞아 증명자료 공개



구하 스님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구하 스님은 1919년 11월 상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에도 참여한 것으로도 추정되는 인물이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구하 스님이 일제 시대에 비밀리 독립운동자금 지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구하 스님 입적 40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24일 공개한 이 자료들은 통도사 주지였던 설우 스님이 주지직에서 은퇴한 구하(1872-1965) 스님에게 써준 독립자금 관련 영수증 5장과 안창호 선생 등 10명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나타내는 '사변시(事變時)·3.1운동을 지칭' '즐거움' 등이다.

"중요문건(重要文件)"이라고 쓰인 종이에 조심스럽게 싸여진 이 문서는 구하 스님이 독립운동 기밀비로 총 1만3천원을 내놓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설우 스님이 구하 스님에게 1927년 써준 영수증들은 구하 스님의 재산을 모두 통도사에 내놓은 것처럼 꾸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독립운동자금으로 지원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변시' '즐거움' 문건에는 △안창호 선생 임시정부 국무총리 재직시 5천원 △소월 스님 경성 혁신공보 사장 시절 2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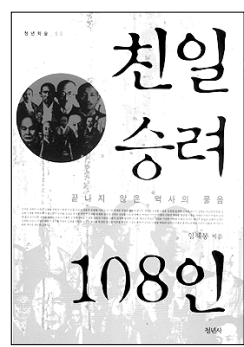
이종욱 당시 총무원장 군자금 수급 때 3천원 △은천서 독립운동가 장인섭에게 1천원 △범어사 공동으로 상해서 500원 △통도사에서 독립운동가 신정훈에게 500원 △김포공에게 500원 △장택의 독립운동 참여에 100원 등의 독립자금 지원내역이 기록돼 있다.

현문 스님은 "구하 스님이 자신의 재산에 쓰고자 남겨놓은 김해·양산의 토지 6천 500평의 제우답을 모두 처분해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다"며 "이 자료들은 2003년 11월경 일하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3.1절을 맞아 구하 스님의 독립운동 지원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80년 만에 공개된 이 자료들은 1911년부터 14년간 통도사 주지를 연임하며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에게 시가 150원(쌀 10가마 값)에 해당하는 은제갑을 선물해 친일 시비에 휘말려온 구하 스님의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근거자료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통도사=천미희 기자

## 혜봉 스님 '친일승려 108인' 펴내... "재평가가 이뤄져야"



"이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황송하며 얼마나 장쾌하며. 전승(戰勝)을 위하여 교주의 성상(聖像)까지 내어 바친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면 없을 것이고, 일본이 아니면 없을 것이다. (...)불상까지 헌납이나 보기에 얼마나 황송하며 국가를 위해 불상까지 응수(應召)하니 참으로 비할 데 없이 장쾌한 바이다" (권상로 스님, '불상의 장행(長行)')  
<친일불교론>을 출간해 불교계의 친일문제를 본격 거론했던 혜봉 스님(이전 지족암

주지)이 <친일승려 108인>을 새로 펴냈다. <친일불교론>이 총론이었다면 <친일승려 108인>은 인물 중심의 저술이다. 이 책에는 대표적인 친일 승려로 꼽히는 이회광·강대련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초대 총장이었던 권상로 스님, 국회의원과 동국대 이사장을 지냈던 이종욱 스님, 그리고 불교학자 김동화·김영수 스님 등 108명의 친일행적이 적나라하게 소개됐다. '친일'의 정의와 기준은 혜봉 스님이 편찬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족

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의 안을 따랐다.

1993년 <친일 불교론>을 출간한 이래 줄곧 있는 불교계 친일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혜봉 스님은 "당시 친일승려는 다 죽었고 어떤 처벌도 불가능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과를 받아들이게 하고, 바른 업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혜봉 스님은 앞으로 불교계의 친일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친일논설을 따로 묶어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 청년사 발행, 값 3만 8천원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제16기 전생·빙의 / 영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 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예제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명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결심 받기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재는 천륜보다 절친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사주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경경계요".....
최면학	●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회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화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지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야 한다.

**본 강좌 개강** 3월 16일(매주 수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 ▶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 ▶ 교육비 : 200만원
- ▶ 입금계좌 : 초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교육 방식**

- ▶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7회과정 비디오 테이프 총 20개)
- ▶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분원에 출석수업
- ▶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 교육비 : 200만원

**통신(VIDEO) 교육과정**

원장 상담학 박사 임재형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전화 : (042) 255-0734-5  
주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무료공개강좌

3월 9일 오후1시-3시까지

한국생활철학연구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학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iTV, CMB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의대 대학에서 강의